



# 국제특수인쇄산업전 성료

대한인쇄문화협회 · 한국이앤엑스 공동주최

특수인쇄분야의 기술향상과 정보교류 활성화 및 국내 디지털인쇄산업과 특수인쇄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대한인쇄문화협회, 한국이앤엑스,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인쇄정보조합, 코트라, 한국화상정보제관조합, 한국계책조합, 한국스크린인쇄조합이 후원한 제3회 국제특수인쇄산업전시

회(PRINKOR 2005)가 지난 8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전시장 인도양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5일 열린 개막식에는 신용언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충환 한국이앤엑스회장, 김충진 한국이앤엑스사장, 최창근 인쇄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인쇄조합이사장, 박

충일 인쇄정보기술협회장, 김두훈 스크린인쇄협회회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개막 테이프를 컷팅했다.

올 전시회에는 20개국 150여개 사가 자사의 신제품들을 출품해 인쇄기계의 국산화는 물론,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시회 기간 중 2만여명이 다녀 갔으며 활발한 내수 및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1. 귀빈들이 개막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2. 귀빈들이 전시회 개요를 설명듣고 있다 3.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조성한 인쇄문화관 4. 신용언 국장이 인쇄문화관에서 '직지'를 탁본하고 있는 모습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PRINKOR 2005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디지털인쇄산업과 특수인쇄산업 전반에 걸친 신예기종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 소개함으로써 상호 기술정보교류를 통하여 우리 인쇄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인쇄기기의 디지털화와 특수인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개최된 제3회 국제특수인쇄산업전시회(PRINKOR 2005)는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전시품이 대거 출품돼 침체되어 있는 인쇄시장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출품품목을 살펴보면 디지털인쇄 분야, 스크린 인쇄분야 및 특수인쇄분야, OA기기분야, 제판 및 출력기분야, 소형오프셋인쇄기 및 특수가공분야, 포장

분야 등 관련산업 전반에 걸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품됐다.

PRINKOR 2003전시회는 다수의 국내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15개국 130여 개사가 참가한 바 있다.

또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는 개막식에 맞춰 8월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신개념 인쇄비즈니스 창출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출품업체 명단>**

(주)쓰리다스타, ABC, (주)아텍스, 알파색채(주), ARC, 아주포커스(주), 아리스트 그래픽시스템, ATS, C.P.Bourg.S.A, 카디날인터네셔널, 킬러버전, 카리, 체로키인터네셔널, (주)다듬, (주)대영테크, (주)일

리정공, (주)디엠피에스, 동아기계, (주)동영화상, EFK, 유로폴드, 플렉스텍, (주)퓨처디스플레이, GIDue, 인쇄계, 한성기성(주), (주)한윤이디에스, 허트세일, 휴고백, (주)현대이앤지, (주)일우인터네셔널, 이미지디제이, 아이엔시, (주)정인교역, (주)케이레이저텍코리아, 건설상역(주), (주)한국신테크, (주)한국유니콤, 경인팩, 맥마당, (주)엠제이월드, 모인코, 멀티그래프, (주)녹원씨앤아이, 피엔통상, 피엠교역상사, 팝사인, 피알아트닷컴, 에스엔에스테크, 삼정이앤지, 삼성종합기계, 산기코리아,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세호로봇산업, 서광상사, 서울다이컷팅시스템, 세리그래프, (주)에스피씨, (주)대주, 태원그래픽, (주)원일아이엠, (주)예텍, 다이오세이키.